

# 제주지역 다문화 가족의 특징

장승심\*

<차례>

- I. 머리말
- II. 제주지역 다문화가족의 실태
- III. 제주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징
  - 1. 가족관계와 생활 의례 분석
  - 2. 다문화 가정의 의사결정권과 생활 만족도
  - 3. 제주지역 다문화 가족의 권역별 특징
- IV. 맺음말

## 국문요약

정보화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본과 노동의 이전 등으로 제주지역에도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과 혼인을 통해 이루어진 제주지역 다문화 가족은 대부분 촌락내혼으로 이루어진 제주 전통가족에 비하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생활의례나 삶의 만족도 또한 다르다.

조사결과 제주 다문화가족의 핵가족형 비율은 제주 전통가족보다는 낮았지만 전국다문화가족보다는 높았다. 또 부부중심의 생활을 하는, 한올타리 안에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고부갈등이 적었다. 동거가족이나 비동거 가족 모두가 시부모의 협조는 많이 받고 있었는데 아기양육, 제주 전통문화 알려주기, 경제적·물질적 도움 등이었다. 의사결정 및 경제주도권은 제주 전통가족과 달리 남편이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또한 제주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제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박사과정, 영평초등학교 교감.

편이었으며, 장남분가집안이 재산균분상속 의지 비율이 높았고, 장남분가 안한 집안은 재산도 균분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조사내용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있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제주지역 다문화가족의 권역별 특징조사에서 성산읍의 경우 한울타리 동거비율이 높고 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만족도는 애월읍 거주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사회에 급증하는 다문화가족이 제주 전통가족에 비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는 이 연구가 제주지역 다문화가족의 이해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제어 :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특징, 시부모동거, 여성결혼이민자 생활만족도.

## I. 머리말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내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이제 수치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모든 도민이 공감할 정도로 알려져 있다. 2011년 발표한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8,499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71,255명 가운데 1.49%를 차지하는데, 이는 2006년 2,645명에 비해 약 3.2배 증가한 것이다.<sup>1)</sup> 이러한 증가 현상은 연도별 외국인주민 현황을 처음 조사한 2005년 이래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내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는 총 2,007명이며, 이들의 자녀는 1,580명인데, 이처럼 제주에 주민등록을 한 다문화가족은 2006년 다문화가족 748명에 비해 약 2.7배 증가하였다<sup>2)</sup>.

1) 제주특별자치도 자료(<http://woman.jeu.go.kr/>)로서 2010.12.31. 기준자료임

2) [http://www.mopas.go.kr/지방행정지원/2011\\_행정안전부\\_외국인\\_주민\\_현황\\_자료](http://www.mopas.go.kr/지방행정지원/2011_행정안전부_외국인_주민_현황_자료)

이처럼 급증하는 제주 다문화가족의 삶을 보면 예전의 전통 가족과는 다른 특징들이 보인다. 예를 들면, 현재 대부분의 제주가족은 핵가족 추세인데 다문화가정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비(非)다문화가정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 또한 제주지역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다문화 가족의 경우, 외국남성과 혼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국여성과의 혼인하여 가족을 이루는 비율이 높다. 그러다 보니 외형상으로도 예전에 촌락내 혼인이 아닌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친족의 구성이 달라졌다.

그러나 가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외형상의 분류 작업보다는 가족제도가 어떻게 변해왔으며, 현재 진행되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가족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가족연구를 토대로 현재 다문화가족 실태를 살펴보는 일은 이러한 가족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제주가족과 비교하여 살펴본 제주 다문화가족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한국가족은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유교적 부계 계승사상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서 아들출산과 부계 조상을 섬기는 제례의식을 유지함으로써 집안 가계를 이어나가는 가족기능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손승영, 1995; 45쪽). 따라서 부모가 가계(家系)를 계승할 장자부부 및 그 자녀들과 함께 가족을 구성하는 부계적 직계가족제도(최홍기, 2006; 227쪽)를 유지했다. 이렇게 장남이 부모가족과 동거함으로 인해 가족의 창설·확대·축소·해체과정이 분명하지 않고 출생과 사망에 의한 성원교체만으로 지속되어·부계·직계·장남으로 가계가 계승되며, 이것이 가족관계와 가족제도, 친족제도의 기본원리가 되었다(최재석, 1966; 653-666쪽, 이창기, 1999; 290쪽; 재인용). 그러나 해방이후 전통가족은 직계가족제가 비판되고 현대사회의 새로운 가족제도로써 서구적 핵가족제가 권장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집중 현상을 거치면서

가족의 세대구성과 형태 등에서 꾸준히 변해 왔다. 이때 젊은 세대 단신, 또는 그 출산가족만을 대동한 이동으로 분거(分居)가족이 늘고, 독신가족이 증가하였으며, 부부중심 가족구성이 됨으로써 전통적인 직계제 구성이 쇠퇴하였다<sup>3)</sup>(최흥기, 2006; 228-229쪽).

반면 제주 가족은 위에서 살펴본 전통적인 한국가족 구성과 달리 좀 더 실용적으로 발달하여 육지부와 상이함을 여러 학자의 연구논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학자들은 한국전통가족과 다른 제주가족 특징으로 장남분가, 균분상속 전통, 부계 혈연 집단의 결속약화, 조상제사 분할 등을 들었으며, 특히 부녀자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남녀접촉이 자유로우며, 이혼과 재혼에 대한 금기의식이 미약하며, 장례혼례에 사돈댁 외가댁이 적극 참여하는 일들은 육지의 전통가족과는 다르다<sup>4)</sup>고 하였다. 이러한 제주사회에서 200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것이 가족과 친족·사회 등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매우 시급하다.

이 연구는 증가하는 제주 혼인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가족관계를 살펴보고, 기존 제주가족의 특징이 다문화가족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여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 일반의 이해와 담론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 연구된 제주 전통 가족 특징을 바탕으로 제주 다문화가정의 가족관계와 생활의례,

3) 한국의 전통가족 구성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흥기 『한국 가족 및 친족제도의 이해』중 제3장 ‘현대 한국 가족제도의 변화’ 부분을 참조할 것.

4) 최재석(1976), 『제주도의 장남가족』; 김혜숙(1999), 『제주도가족과 켤당』; 이창기(1999), 『제주도 인구와 가족』에서는 제주사회의 가족이 구조, 형태, 기능 및 가족관계 측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보이는데, 친족을 ‘켤당’이라고 부르며, 부계친족을 ‘방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관계는 혼인을 통해 맞물리며 생활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왔다고 한다.

다문화가정의 의사결정권과 생활만족도 등을 조사 분석하고, 제주지역 다문화가족의 권역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전통 제주가족 특징은 기존 연구에서 조사된 것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대부분이 1999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뿐이어서 본 연구와 10년 이상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징요소를 추출하여 비교하면서도 수치의 정확한 비교보다는 대강의 실태 파악에 의미를 두었다. 둘째, 제주 가족이나 다문화가족 모두가 이들의 외형구조와 내적 특징 가운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대체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살펴 본 제주 지역 다문화가족들의 관계와 생활의례, 가족 간 의사소통과 생활만족도, 권역별 특징들은 다문화가족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2. 선행 연구 동향

가족제도는 가족 구성원의 수, 혈연관계의 범위, 가족 내에서의 권위의 소재 그리고 부부의 결합 방식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조정문, 장상희, 2009; 63쪽). 버제스와 로크(Burgess and Locke, 1953; 7-8쪽)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의 유대로 맺어진 사람들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외적형태도 다양하다. 핵가족, 동거가족, 무자녀가족, 독신가족, 동성애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등도 전통적 가족구성은 아니나 엄연히 세대(世帶)를 이루는 가족인 것이다.

제주사회의 경우, 일찍부터 육지부에 비해 핵가족 비율이 높는데 결혼하여 독립하고 자녀를 만 18세 이상까지 키운 40~60세 정도의 부부들

은 자녀를 대학교육 및 직장 등의 이유로 육지로 보내고, 집에는 부부끼리만 살며, 노부모는 따로 촌락에 떨어져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들을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은 떨어져 살고 있기는 하나 정서적으로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을 공유하지는 않으나 전하나 가끔의 방문을 통해 일상의 생활을 보살펴 준다. 또한, 자녀에게는 독립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노부모에게도 일상생활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경제적 지원을 하며, 독립 후에도 노부모의 경제생활 능력이 있을 시에는 협조를 한다. “가족은 경제적 협동 혹은 일상생활의 공유를 지속적으로 영위하여 정서적 만족을 얻는 사회생활의 단위(조정문, 장상희, 2009)”라고도 정의하지만, 본 연구에서 말하는 제주가족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부를 중심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와 경제적 협력을 같이하는 생활 공동체”로 정의하여 연구를 하였다.

### 1) 제주 전통가족 연구 동향

제주지역 가족연구로는 이차숙(1968)의 제주도 축첩의 관행과, 최재석(1975)이 연구한 잠수가족의 권력 구조와 장남가족(1976)연구가 있으며, 김양순(1977)이 제주도의 가족생활 실태일부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35년 이전의 연구들로서 그동안 제주가족에 대한 연구가 소홀한 감이 많다. 가장 최근의 제주도 가족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이창기(1999)의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연구가 있으며, 김혜숙 외(1999)가 도시중산층과 제주도의 가족·친족에 관한 연구, 또한 김혜숙 외(2005)가 서울지역과 제주도의 도시중산층 가족사례 중심의 연구를 통해 가족구성원이 달라지면 공동거주의 형태와 의미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가 있을 뿐이다.

전통적 한국가족은 부계의 원리, 직계의 원리, 장남의 원리에 의해 수행되지만, 제주도 가족은 이와 상이하다. 이창기(1999; 299쪽)에 따르면 제주도 가족제도는 조선중기이후의 전통 한국가족에 비해 장남분가, 재산상속의 균분경향, 부부중심의 가족생활, 촌락내혼, 문중조직의 약화, 상이한 혼인의례, 높은 이혼율과 재혼율, 사후혼의 관습, 조상제사의 분할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본 연구의 시점과 차이가 있거니와, 다문화가족은 일단 외국여성과의 혼인으로 인해 촌락내혼은 전혀 아니므로 나라마다 다른 혼인의례와 비교하기가 힘들며, 문중조직 약화나 이혼·재혼율, 사후혼 관습은 다문화가족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 가운데에서 현재의 다문화가족과 관련 깊은 요소인 장남분가, 재산상속의 균분경향, 부부중심의 가족생활, 조상제사의 분할 등에 대해 조사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제주 농어촌가정의 가족 내 부부간 의사결정권을 살펴본 연구를 보면 대외적인 일이나 농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일은 남편결정권이 높고, 재산이나 고액의 금전거래는 부부가 상의하거나 이 또한 남편결정권이 높았으며, 부인 자신의 문제나 가사에 관련된 것은 부인결정권이 높았다고 한다. 그리고 부부간 갈등이 심할수록 부인결정권이 낮아지고 갈등이 없을수록 부인결정권이 높았는데, 이렇게 갈등 정도가 부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화목한 가정일수록 부부간 공동결정이 많다고 하였다(김혜숙, 1999;4-15쪽, 22쪽).

이렇게 경제권 주도, 의사소통, 갈등의 유무, 혼인생활만족도 등은 제주 다문화가족에서 조사해 볼만한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여성혼인이민자의 경우 언어 사용 능력이 부족한 데, 이런 경우 경제권 주도와 의사소통, 의사결정과정 등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제주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 관계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시부모

와 며느리 관계를 파악한 김혜숙(1999; 52-79쪽)의 연구에 따르면 제주 전통 가족의 분가상태는 핵가족형이고, 고부(姑婦)가 경제단위나 거주 단위로 생활을 분리하면서도 한 울타리내의 안·뽕거리<sup>5)</sup>에서 생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가사운영이나 역할수행에서 협조적이며 애정관계도 긍정적인 편인데, 고부간 불만강도 수치는 거주상태에 따라 달라서, 같은 마을이나 다른 마을보다는 한울타리에 살 때 더 높다고 했다. 이러한 고부간의 철저한 분가주의는 경제적 및 정신적 독립의지 등이 강한 제주여성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고도 하였다.

문화는 사회적으로 지배집단의 이해에 영향을 받고, 지배집단은 특정 구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고 정당화한다(이레인볼드윈 외, 2009; 39쪽). 그러므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주 전통가족의 문화는 다문화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전국의 다문화 가족과 제주의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

전국 다문화가정 중 시댁과 함께 사는 비율은 약 24%(설동훈 외, 2005; 86쪽)로 높은 편이며, 여기에 근거리에 사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수에 이른다. 이런 경우 시어머니는 가족 중 외국인 며느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일상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한국 가족구조상 며느리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며느리의 한국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순돌 외, 2010).

실제 상당수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문제와 사고방식 또는 생활방식 차이(구차순, 2007), 지나친 간섭이나 억압(한건수, 2006)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이

5) 제주에서는 중심이 되는 안채 가옥을 안거리라고 하고 바깥채를 뽕거리라고 부름.



겪는 가족 내 문제점으로는 언어습득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국가족의 특수성, 즉 핵가족 형태지만,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와 시부모의 며느리에 대한 통제가 항존 함으로 인한 시댁 및 남편과 갈등 등이 있다(홍기혜, 2000).

장은정 외(2009)는 남편의 특성요인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며, 최정혜(2009)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계급화문제, 기대차이문제, 언어와 문화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크다고 하였다. 손승영(2011)은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부계중심가족주의와 일반적인 가족문화의 전수를 들면서 부적응 시 결혼생활의 불신과 가정폭력을 야기하고, 경제문제로 인한 갈등이 크다고 하였다.

김유경(2009)은 부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생활이나 재산과 관련된 것은 한국인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부부간 갈등 유발 원인은 경제 및 자녀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노부모 부양비율은 43.9%였고 가족부양 어려움은 언어소통과 노인수발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는 전국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우리 제주지역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가족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의 조사, 즉 제주 전통가족에 비추어보는 가족관계 특징파악이 필요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면적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자족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문화형성에 미치는 환경조건 영향도 훨씬 직접적(이창기, 1999;286)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도 육지에 비해 늦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다문화가족 관계 연구도 거의 없었다. 제주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이러한 생활문화가 바탕이 된 제주에서 제주가족과 살

게 됨으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형성과 생활의례가 육지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주의 가족제도나 가족생활 양식 가운데 한국의 전통가족과 상이한, 그래서 보다 더 제주적이라고 인식되어 온 여러 가지 특성들은 열악한 제주환경에 합리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제주인의 생존전략 즉 적응의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처럼 합리적 적응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형식과 명분을 중시하기보다는 능률과 실질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창기, 1999; 294쪽).

결혼이민자들도 제주가족에 속함으로써 삶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같은 실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일원으로서의 의식, 유대감을 갖게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안에서는 이들이 한국가족 또는 제주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sup>6)</sup>

제주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2007)가 결혼이민자 가족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가구 특성, 국적, 입국과정, 경제활동, 입국과정, 적응과정, 가정생활, 자녀양육조사가 있다. 이 자료는 결혼이민자의 인적사항·결혼·본국·한국적응·가정생활만족도·배우자·출산자녀·정책욕구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첫 번째 자

6) 국적법 개정 이전인 1997년까지 여성혼인이민자는 혼인과 함께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위장혼인 등의 폐해로 인해 체류비자(F2)자격으로 2년 동안 국내거주를 허락했다. 그러나 매년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조건으로 비자를 갱신해야하므로 이 기간에 이혼 등으로 혼인사유가 소멸되면 미등록자(불법체류자)가 되므로 지위가 불안정했다. 그러나 2004년 국적법재개정으로 배우자의 사망 실종 및 배우자귀책사유로 이혼할 경우에는 여성혼인이민자도 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런 불안정한 체류권(영주권)은 가족 내의 지위에도 영향을 끼쳐서, 안정된 영주권 혹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종속되어 벗어나기 힘들므로 가족 내에서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다.

세한 실태조사였다. 연구에 참고한 내용은 결혼이민자 동거가족인데, 시부모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배우자의 형제자매, 기타, 시조부모, 조카순이었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71.1%로 높았고, 불만은 7.7%였는데 원인은 경제적인 요소, 의사소통 어려움, 시대 식구 및 남편과의 갈등순이라는 것이다. 유소영(2010)<sup>7)</sup>도 제주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불만족 원인으로 의사소통과 시부모,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곤란을 들고 있는데 순서는 다르지만 요인은 다르지 않다.

2년 후인 2009년 실시된 제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생활이 어려운 이유를 언어 및 생활 방식 관습 등 문화차이, 경제적 어려움, 자녀교육 및 양육, 외로움, 가족 간의 갈등 때문이라고 하였다. 전반적인 가정생활만족도는 59.6%로 2007년에 비해 낮아졌고, 만족도에 보통이라고 표시한 경우가 2007년 17.4%에 비해 2009년 33.3%였으며 불만은 4.8%로 나타났는데 2009년 조사에서는 불만 원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연구자는 2년 전에 비하여 14.5%나 낮아진 생활만족도의 이유가 매우 궁금했는데, 새로운 결혼이민자의 증가인지,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만사항의 증가인지, 그 불만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없고, 또 2007년과 달리 가족관계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동거가족 조사가 빠져 있어서 매우 아쉬웠다. 어려운 일의 의논대상은 주로 모국인(52.2%)이었고, 다음은 한국인(36.6%), 기타 외국인(3.0%)의 순으로 나

7) 유소영(2010)은 '제주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적응 실태와 정책방향'이라는 석사 학위논문에서 32가족의 생활을 조사했는데, 적응실태에서는 가족 및 일상생활의 불만족 원인과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정책방향으로 부부갈등 해소프로그램과 부부 대화프로그램, 부부와 자녀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 다문화가족의 심층적인 관계 및 생활특징 조사가 목적인 본 연구가 제주 전통가족 특징에 비추어 보는 제주 다문화가족의 특징조사와는 방법 면에서도 확연히 다르다.

타났는데, 이는 함께 사는 제주가족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제외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사소통의 부재를 해소하고 서로 이해하고 보살피는 새로운 가족관계의 정립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였다.

결혼이민자 가구 소득은 2007년에 100만원미만<sup>8)</sup>이 17.3%였으나 2009년에는 26.8%로(제주특별자치도, 2010)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제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의 일반현황과 거주 지역, 한국어 능력, 경제 상태와 취업, 자녀양육실태, 다문화가족 건강, 다문화가족의 사회생활, 복지, 결혼생활과 가족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현황조사로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을 자세히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족구성이라고 해서 자세히 보면 동거가족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시부모와의 동거여부나 의사결정권 및 경제권의 주도, 재산상속이나 제사의 분할 같은 실제 삶의 모습을 전혀 알 수 없다. 염미경(2011)은 위의 두 차례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관계 양상을 살펴보면서 전형적인 가족형태와 변화 속에서의 다문화가족 관계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 다문화가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위의 조사로는 알 수 없었던 제주전통 가족 특징인 장남분가, 재산상속의 균분경향, 조상제사 분할, 한울타리안 안·밖거리 생활, 가사운영과 역할수행의 협조관계 등을 설문이나 면접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응답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제주 다문화가정의 가족관계와 생활의례, 다문화가정의 의사결정권과 생활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제주지역 다문화 가족의 권역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8) 2010년 4인 가족 최저생활비는 1,363,000원임.

## II. 제주지역 다문화 가족의 실태

### 1. 조사 대상

본 연구지역과 대상은 기존연구에서 전통 제주가족 조사 시 거론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도의 동·서·남·북부지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려 의도하였다. 그리하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애월읍, 성산읍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이 지역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어 이해 부족으로 설문응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남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조사 대상은 아래 <표 1>과 같이 여성결혼이민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으로서 기초실태조사에는 72명 모두 응답하였으나 설문읽기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답형으로 정리한 설문에는 66명이 응답하였고, 세부항목에서는 62명이 답변하였기에 이를 모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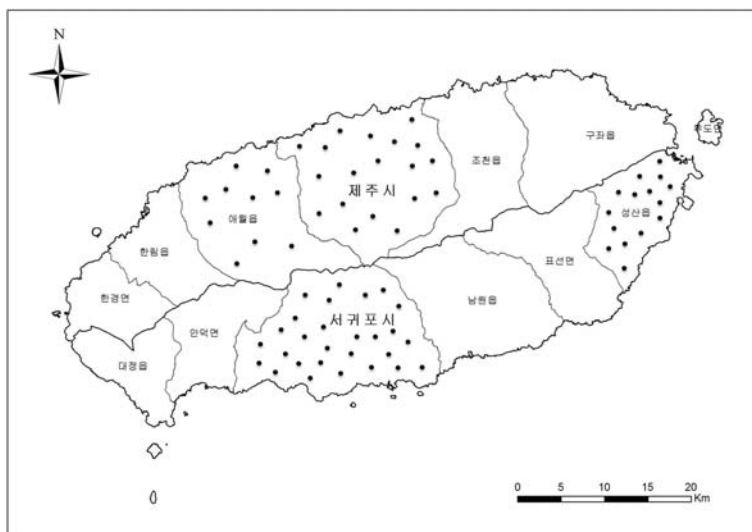
<표 1>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정도와 혼인기간 및 직업분포 (단위 ; 명, %)

교육정도			혼인기간			직업		
학력	인원	비율	기간	인원	비율	종류	인원	비율
초졸 이하	19	26.4	2년 이하	33	45.8	농업, 노동	8	11.1
중졸 이하	15	20.8	5년 이하	17	23.6	생산직, 사무원	3	4.2
고졸 이하	20	27.8	10년 이하	12	16.7	강사, 전문직	9	12.5
대졸 이하	18	25.0	11년 이상	10	13.9	전업주부	52	72.2
합계	72	100	합계	72	100	합계	72	100

조사 대상자의 출신국가는 아래의 <표 2>와 같이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2〉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지 와 출신국가 분포 (단위 : 명, %)

지역별 인원 및 비율			출신 국가별 인원(명) 및 비율(%)								
지역	인원	비율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러시아	합계
제주시	19	26.4	4	2	3	4	3			3	19
서귀포	28	38.9	10	3	4	8		2	1		28
애월읍	10	13.9	1		1	8					10
성산읍	15	20.8	1	1	4	3	6				15
합계	72	100	16	6	12	23	9	2	1	3	72
비율			22.2	8.3	16.7	31.9	12.5	2.8	1.4	4.2	100



조사대상자의 제주도내 거주지 분포도(1명을 거주 지역에 점 하나로 나타냄)

조사 대상지역은 도내에서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정했다. 제주도내 다문화가족 거주현황에 따르면<sup>9)</sup> 제주시 동지역이 679가족, 서귀포시 동지역 255가족, 애월읍 139가족, 조천읍 78가족, 대정읍

72가족, 한림읍 71가족, 구좌읍 67가족, 성산읍 57가족 등의 차례이다. 그래서 왼쪽지도에 보는 것처럼 제주시, 서귀포시, 애월읍 성산읍을 택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조사 연구를 주로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 면담을 병행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는데 제주도 가족생활 실태일부에 관한 연구(김양순; 1975;68쪽)설문 문항과 제주도가족과 켄당(김혜숙;1999; 55-79쪽)내용을 참고하였다. 그 이유는 2000년 이후 제주도가족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서 그동안 변했을 가족 실태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였고, 또한 예전 제주가족 특징으로 연구 발표된 내용이 지금의 다문화가족에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을 거의 비슷하게 구성해서 예전과 현재를 비교해 보고자 한 것이다.

설문지를 통한 조사 연구는 대상자의 문자 독해능력부족으로 면대면 조사를 하면서 조사자가 기록했는데 이 때 알게 된 사항을 추가하여 정리하였다.

설문지는 해당가족 중 여성결혼이민자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주거형태, 시부모의 거주 장소, 식사형태, 가정 내의

9) <http://woman.jeju.go.kr/>. 여기 제시한 다문화가족 거주현황과 외국인거주현황은 좀 상이한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2010)자료에 보면 외국인 거주현황은 애월읍이 644명이고 아라동540명, 한림읍504명, 노형동492명, 연동411명, 성산읍 353명, 이도2동 309명, 추자면287명, 조천읍286명, 구좌읍250명 등임. 아라동 노형동 연동은 제주시 동지역임. 그래서 외국인거주현황과 다문화가족거주현황을 지역 선정에 참고함.

경제관리, 부모봉양, 분가형태, 분가 시 지원내용 등을 ① 장남분가 ② 재산상속의 균분경향 ③ 부부중심의 가족생활 ④ 조상제사의 분할 ⑤ 핵가족형 ⑥ 한올타리안의 안·푼거리 생활 ⑦ 가사운영과 역할수행의 협조관계 ⑧ 고부간의 불만강도 ⑨ 의사결정권 ⑩ 경제권의 주도 등의 문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본 연구 의도에 맞춰 덧붙인 문항도 포함하였다. 다만 ③과 ⑤는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넣었는데 조사 결과 ±3명의 오차범위여서 대체로 성실히 응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쉬운 말로 고쳐서 설문을 만들고자 하였다.

질적 조사는 양적인 예비조사 후에 추가로 실시하려고 예정하였으나 설문지에 응답이 어려운 경우, 문항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면접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그 내용을 중간 중간에 정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결혼이주 기간이 짧은 대상자는 통역과, 다문화가족기관 관계자들의 면대면 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주기간이 오래되어 문자독해와 언어소통이 가능한 사람(주로 일본에서 온 이주여성이나 중국 조선족)은 스스로 적었고, 경제력이나 의사결정 등 어려운 말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조사자가 설명 해주고 기록하였다. 특히 경제권이나 재산상속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동안 가족들과 잦은 접촉으로 알거나 상담을 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자료 분석의 방법은 SPSS12의 기술통계량으로 빈도분석과 상관분석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빈도분석은 시스템 결측값이 있어서 빈도수 옆에 괄호 안에는 유효 퍼센트를 활용 기록하였다. 즉,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관분석을 하였는데 문항내용을 서로 관련지어 파악하기 위해서 특징가운데 두 가지 요소를 택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 분석하였다.

가설1, 제주 다문화가족은 제주 전통가족보다는 부모동거 비율이 낮을 것이다.

가설2, 의사결정권과 경제권을 남편이 가지면 남편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3, 제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는 절반정도일 것이다.

가설4, 장남 분가한 집안은 재산균분상속과 제사 분할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5, 제주 다문화가족은 제주지역 내에서도 권역별 특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교차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 Ⅲ. 제주 다문화 가족의 특징

#### 1. 가족관계와 생활 의례 분석

제주 다문화 가족의 가족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핵가족과 장남분가 상황을 살펴보고 시부모와 한울타리 동거를 하는지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고부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결과(김혜숙, 1999; 30쪽)에 따르면 제주가족의 형태에 있어서는 부부가족이 82.1%로써 제주도가 부부중심의 가족제라고 한다. 이러한 부부중심 가족제 비율이 높은 것은 제주가족의 특징인데 다문화가족은 부부중심 가족제 비율이 66.1%였고, 장남분가 비율은 62.9%로서 아래와 같다.

〈표 3〉 제주 다문화가족 부부중심 및 장남 분가 (단위 : 명, %)

응답	문항	부부중심	장남분가
		부부와 자녀 중심 가족 여부	장남분가여부
그렇다		41(66.1)	39(62.9)
아니다		21(33.9)	23(37.1)

이런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조사한 전국 다문화가족의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비동거 비율(56.2%)<sup>10)</sup>에 비하면 높은 편(66.1%)이지만 일반 한국가족(73.8%)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이로써 제주 다문화가족의 부부중심 핵가족형의 비율은 제주 전통가족이나 국내 일반가족보다는 낮지만 전국다문화가족보다는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육지나 제주 모두 다문화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해 시부모 동거비율이 높은 편인데, 그나마 제주는 육지보다는 시부모 동거 비율이 낮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안거리와 밖거리에 사는 제주만의 독특한 동거유형과 부엌 따로 식사 따로 하는 제주만의 식생활유형을 감안하면, 동거하고 있다고 해도 독립된 생활을 존중해주는 의식은 높다고 할 것이다. 안거리와 밖거리에서 고부가 함께 사는, 한울타리 동거 여부와 고부간 갈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0) 김유경(2009)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45쪽.

구분 (동거인)	시부모 (처부모)	시아버지 (장인)	시어머니 (장모)	시부모(처부모) 비동거	계
결혼이민자	18.8%	2.9%	22.1%	56.2%	100%
한국인배우자	10.8%	1.6%	13.8%	73.8%	100%

〈표 4〉 한울타리 부모동거와 고부간 불만 여부 (단위 : 명, %)

한울타리동거와 고부갈등 교차표		고부간 불만여부			전체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한울타리 동거여부	그렇다	8(34.8)	10(43.5.)	5(21.7)	23(100)
	아니다	5(12.8)	31(79.5)	3(7.7)	39(100)
전체		13(21.0)	41(66.1)	8(12.9)	62(100)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고부간 불만은 한울타리에 동거하는 경우가 34.8%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 1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만 없음이 77.5%로써 동거하는 경우 43.5%보다 높았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한집에 살더라도 안팎거리나 1,2층에서 사는 경우엔 개인적인 사생활이 보호되어 고부갈등이 덜하나 마루 하나 사이에 두고 안방 건넌방에 사는 경우에는 낮잠을 자는 등의 사생활이 노출되어 고부갈등이 있음을 설문지 조사 시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족 시부모 동거실태를 조사한 후 기존 제주가족의 거주형태와 비교해보면 제주 전통가족에 비해 다문화가족의 부모동거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김혜숙, 1999; 56쪽)에 따르면 시부모와 한집 또는 한 울타리내 거주 비율이 32%였으나, 이번 연구결과는 38.3%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다문화가족이 시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기존의 제주 전통가족보다 6.3%나 높은 것으로서 추후 제주일반가족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을 조사 연구해보면 제주가족의 변화양상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 시부모 한울타리 동거실태

(단위 : 명, %)

거주형태	기존연구대상: 제주가족	이번연구대상: 제주 다문화가족
시부모와 한집에 산다.	86 (18.1)	18 (30.0)
한울타리내 안거리와 밖거리에 산다.	66 (13.9)	5 (8.3)
같은 마을에 따로 떨어져 산다.	150 (31.6)	11 (18.3)
다른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서 산다.	173 (36.4)	23 (38.4)
기타(부모안계시거나 무응답)		5 (8.3)
합계	475 (100)	62 (100)

위 비교 근거 자료는 비록 10여 년 전 연구결과이지만 오늘날 제주 다문화가족의 시부모와의 동거실태를 파악하고 비교하는데 유용하였는데, 시부모와 한 울타리내 동거비율은 적지만 한집에 또는 1,2층에 사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같은 마을에 따로 떨어져 사는 비율보다 다른 마을에 멀리 떨어져 사는 비율이 높았다. 또 데리고 살던 아들인 경우에는 결혼을 해도 외국며느리가 아이양육이 힘들 것 같아서 돌봐주려고 동거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러시아출신 여성결혼 이민자는, 남편이 큰아들로서 남동생과 여동생이 각각 한명씩 있는데 남동생은 서울에 살고 여동생은 부모님댁 가까이에 산다고 했다. 그녀는 아들을 2명 낳았으며, 부모님과 동거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언젠가 남편이 직업이 없으면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럴 거냐고 했더니 본인은 간섭받기 싫어서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같이 있을 때에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좋다고 했다. 시부모와의 동거가 좋은 점도 있지만 능력만 된다면 분가해서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시부모와 동거여부와 동거유형, 동거 시 식사준비와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6> 시부모 동거여부 및 동거 시 식사준비 유형 (단위 ; 명)

시부모 동거여부 및 유형		한집, 한울타리 동거 시 식사유형	
한집에 산다	18	부엌 따로 식사 따로	4
한울타리 안팎거리	5	식사준비와 식사를 같이	5
같은 마을 다른 곳	11	부엌 따로 식사같이	3
다른 마을에 떨어져서	23	가끔씩 같이하거나 따로	6
기타(부모님 안 계시거나 무응답)	5	무응답	5
합계	62	합계	23

시부모와 같은 집 또는 한울타리에 산다는 23가정 중 부엌을 따로 사용하고 식사도 따로 하는 제주 전통 가족 방식을 이어가는 가정이 4가정, 식사준비와 식사를 같이하는 가정은 5가정이었다. 이는 다문화가족관계에서도 고부간 독립적 생활을 했던 전통가족 흔적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 7>과 같이 한울타리 동거여부와 부모협조 여부, 고부갈등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한울타리 안에 동거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31.9%가 모두 고부갈등이 있다고 하였고, 시부모의 도움은 58.3%가 받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표 7〉 한울타리 동거여부와 부모협조내용 및 고부갈등 (단위 : 명, %)

	한울타리 동거여부	아기양육 등 부모도움 여부	고부갈등여부
그렇다	23 (31.9)	42 (58.3)	23 (31.9)
아니다	39 (55.6)	17 (23.6)	36 (50.0)
무응답	10 (12.5)	13 (18.1)	13 (18.1)
합계	72 (100)	72 (100)	72 (100)

한울타리 동거가 고부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부부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결가능성이 높으며, 가족 간에 이해 정도가 높은 경우도 있었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이주며느리가 새로 시집온 여성결혼이민자의 하소연에 “어머니가 소리 질러도 화가 난 것이지 싫어하는 것 아니에요”하고 위로했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정서적으로 좋고 애기를 같이 돌봐주고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반기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같이 살기 싫어하지만 며느리가 “나 어머니하고 살 거예요, 애기나면 키워주세요 나는 일 하러 갈 거예요” 하면 시어머니는 “에구 혹 떼려다가 혹하나 더 붙었네” 한다고 했다.

한 울타리에 동거하는 시부모는 자녀양육과 제주음식 및 제사음식 만드는데 도와주고 있으며, 고부갈등 원인은 일상생활간섭 39.1%, 한국말 못한다고 무시하는 경우 21.8%, 며느리협담 17.4%, 아기양육 간섭이 13%로 나타났다. 이런 고부갈등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시부모 협조 내용과 고부갈등 원인 (단위 : 명, %)

아기양육과 제사 등 부모도움 내용		고부갈등 원인	
아기 키우기 돌보기	16 (38.1)	일상생활간섭	9 (39.1)
제주음식 및 제사음식 만들기	12 (28.6)	말 못한다고 무시	5 (21.8)
경제적 물질적 도움	4 (9.5)	머느리힘담	4 (17.4)
제주어, 제주전통 알려주기	4 (9.5)	아기양육간섭	3 (13.0)
복수응답(양육, 제사음식, 경제도움)	6 (14.3)	바빠도 안 도와줌	2 (8.7)
합계	42 (100)	합계	23 (100)

다문화 가정 재산상속 및 조상제사에는 장남분가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표 9>와 같이 장남분가비율은 63.6%였고, 재산균분 상속계획에 대해서는 53.0%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제사분할에는 43.9%가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9〉 장남분가 및 재산균분상속과 제사분할 여부 (단위 ; 명, %)

응답	분항	장남분가	재산균분상속	제사분할
	장남 분가 여부	재산균분상속 여부	제사 분할 여부	
그렇다		42 (63.6%)	35 (53.0%)	29 (43.9%)
아니다		24 (36.4%)	31 (47.0%)	37 (56.1%)

남편이 큰아들로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낳고 사는 러시아출신 여성결혼이민자는 아버지가 종손이고 남편도 종손인데 부산에 있는 재산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고 시고모가 관리하며 잘 도와준다고 했다.

장남분가가 재산상속과 제사분할에 미치는 영향을 <표 10>과 같이 교차 분석한 결과, 장남분가한 집안은 재산을 균분상속을 하겠다는 비율

이 57.1%였고, 분가 안한 집안은 재산균분상속 비율이 45.8%였다. 장남이 분가할수록 부모가 재산을 자식들에게 골고루 더 나누어주려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표 10〉 장남분가와 재산균분상속 교차분석 (단위 ; 명, %)

장남분가와 재산균분상속 교차표		재산상속 균분 예정		전체
		그렇다	아니다	
장남 분가여부	그렇다	24(57.1)	18(42.9)	42
	아니다	11(45.8)	13(54.2)	24

그러나 면담하며 조사한 결과,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 여성 대부분이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이야기를 안 해 주어서 모른다고 했다. 시골에 살면서 농사짓는 부모를 돕는 결혼이민자도 시부모님이 “이 미 깡발은 큰 아들꺼, 이건 작은아들 꺼” 하면서 어찌다 얘기해도 이런 말이 무얼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농사짓다가 3년 정도 살면서 좀 익숙해지면 “이거 오빠(남편)꺼예요” 하는 정도였다.

장남 분가 시 제사 분할은 <표 11>과 같이 47.6%로 나타났다. 즉 장남이 분가해도 제사분할은 47.6%가 하고 52.4%는 안하는데, 장남이 분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사도 분할하지 않는 비율이 62.5%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표 11〉 장남분가와 제사분할 교차분석 (단위 ; 명, %)

장남분가와 조상 제사 분할 교차표		제사분할 여부		전체
		그렇다	아니다	
장남 분가여부	그렇다	20(47.6)	22(52.4)	42
	아니다	9(37.5)	15(62.5)	24



제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직접 지내는 경우보다는 시부모님이나 형님이 준비하는 것을 거드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으며, 며느리로서 시집제사에 제물을 갖고 간다거나 물질적 도움을 준다는 생각조차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거나 물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제사라는 말은 잘 모르고 [식계]라는 제주어에 더 익숙해 있었다. 간혹 직접 제사를 준비하는 여성들도 있었는데 중국에서 시집온 여성은 본인이 준비하여 제사를 차린다고 하였다. 일본에서 온 어떤 여성은 자기가 준비하고 시댁에 가서 지내며, 베트남에서 시집온 여성은 시어머니가 일본인이어서 본인이 준비하고 만드는데 친척들이 맛있게 잘했다고 칭찬해준다고 자랑하였다.

교회에 다니는 러시아 결혼이민자는 제사를 안 한다고 했고, 시댁에 같이 살면서 제사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시부모가 비용을 대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제사풍습이 달라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러시아에서는 고려인들 “돌아가시면 3년까지만 제사해요, 4월5일(한식)하고 추석 때 산소에 가서 제사 지내는데 식구끼리만 가요. 이렇게 해서 3년 지나면 안 해요. 집안에 따라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하면서 언제까지 제사를 지내야 하느냐고 의아해 하였다. 제사음식은 러시아에서도 고사리, 떡, 기름떡(참쌀로 만들어서 기름에 부치는 떡), 과일 등으로 제주와 비슷한데, 다른 것은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적으로 올리는 대신 닭을 삶아서 올려놓는다고 했다.

## 2. 다문화 가정의 의사결정권과 생활 만족도

부부의 권력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부간 의사결정권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여기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조사

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의사결정권은 대부분 한국인 배우자인 남편이 가지고 있으며 경제주도권 또한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제주가족을 상대로 도출된 연구결과(김혜숙, 1999; 25쪽)인, 부부간 의사결정은 거의 평등하게 분배되며 공동결정을 하는데, 대외적 일이나 농사 관계 일에선 남편 결정권이 크고, 부인 자신에 관계된 일이나 가사 일은 부인 결정권이 크다는 것과는 다른 특징인데, 제주 다문화 가족은 남편이 의사결정권과 경제권을 주도하고 있었다.

〈표 12〉 의사결정권 및 경제권 남편 주도 여부 (단위 ; 명, %)

	판단 및 의사결정권 남편 주도 여부	경제권 남편 주도 여부
그렇다	41 (66.1)	36 (58.1)
아니다	21 (33.9)	26 (41.9)

한 응답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물가와 화폐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돈이 있으면 가버린다는 말들을 믿어서” 그렇다고 했다. 또 “이주기간이 짧은 아내는 전기세가 뭔지도 모르고 핸드폰요금이나 자동차세금, 보험 등에 대해 모르며, 금융기관 이용이 서툴러서 경제를 맡기지 못 한다”고 하는 남편도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시집와 10년 된 여성의 남편은 아내가 취업하고 열심히 일하여 번 덕분에 집을 샀다며 고마워했는데, 그 때문인지 아내가 경제권과 의사결정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결혼이주여성들은 재산상속이나 경제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남편들은 이 부분에 예민하게 대응하고 얘기하길 꺼렸다.

한편 남편이 의사결정권과 경제권을 가진 경우는 80%였으며, 남편이

의사결정권을 갖지 않으면서 경제권을 가진 경우는 19%로서, 대부분의 남편이 의사결정권이 없으면 경제권을 가지는 비율도 <표 13> 처럼 적었다.

<표 13> 의사결정권과 경제권 주도와의 관계 (단위 ; 명, %)

의사결정권과 경제권주도 교차표		경제권 남편 주도 여부		전체
		그렇다	아니다	
판단 및 결정권 남편 주도 여부	그렇다	32 (80.0)	8(20.0)	40(100)
	아니다	4 (19.0)	17(81.0)	21(100)

\* 무응답은 missing data로 처리함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의사결정권과 경제권주도여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상관계수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 분석되었다.

<표 14> 의사결정권 및 경제권 주도여부의 상관관계

의사결정권 및 경제권주도 상관		판단 및 결정권 남편주도 여부	경제권 남편주도 여부
판단 및 결정권 주도 여부	Pearson 상관계수	1	.589(**)
	유의확률 (양쪽)		.000
	N	61	61
경제권 주도 여부	Pearson 상관계수	.589(**)	1
	유의확률 (양쪽)	.000	
	N	61	62

\*\*  $P < 0.01$

또한 의사결정권 주도와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남편이 의사결정권을 주도하고 있는 경우에 80%가 만족하고 있고, 남편

이 의사결정권을 주도하지 않는 경우에 57.2%가 다음과 같이 만족하고 있었다.

〈표 15〉 의사결정권 남편주도와 배우자 만족도 상관관계 (단위 ; 명, %)

의사결정권 주도와 배우자만족도 교차표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	
의사결정권 남편주도여부	그렇다	22(55.0)	10(25.0)	7(17.5)	1(2.5)	0	40(100)
	아니다	6 (28.6)	6(28.6)	8(38.0)	0	1(4.8)	21(100)

\* 무응답은 missing data로 처리함

경제권주도와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남편이 경제권을 주도하고 있는 경우에 75%가 만족하고 있고, 남편이 경제권을 주도하지 않는 경우에 65.5%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자가 예측했던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그 까닭에 대해선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16〉 경제권 남편주도와 배우자 만족도 상관관계 (단위 ; 명, %)

경제권주도와 배우자 만족도 교차표		배우자 만족도 정도					전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	
경제권 남편주도여부	그렇다	21 (58.3)	6 (16.7)	8 (22.2)	0	1 (2.8)	36 (100)
	아니다	7 (26.9)	10 (38.6)	7 (26.9)	1 (3.8)	1 (3.8)	26 (100)

이러한 연구결과로서 의사결정권 및 경제주도권이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상관관계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상관계수가  $P < 0.01$ 과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결론 분석되었다.

<표 17> 의사결정권 및 경제권 주도와 배우자 만족도 상관관계 (단위 : 명, %)

의사결정권 및 경제권주도와 배우자 만족도		의사결정	경제주도	부부만족
의사 결정	Pearson 상관계수	1	.589(**)	.282(*)
	유의확률 (양쪽)		.000	.028
	N	61	61	61
경제 주도	Pearson 상관계수	.589(**)	1	.227
	유의확률 (양쪽)	.000		.076
	N	61	62	62
부부 만족	Pearson 상관계수	.282(*)	.227	1
	유의확률 (양쪽)	.028	.076	
	N	61	62	67

\*\* P<0.01 \* P<0.05

제주여성결혼이민자의 만족도는 조금 만족 이상을 합하면, 다음의 <표 18>과 같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62.5%, 제주생활 48.6%, 자기 자신 45.8%, 친척 43.1%, 시부모 41.6%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척에 대한 불만은 13.9%, 시부모와 이웃에 대한 불만이 12.5%로 나타나서 가족 친척 관계에서도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표 18> 제주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 (단위 : 명, %)

대상	매우만족	조금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	무응답	합계
배우자	28 (38.9)	17 (23.6)	17 (23.6)	2 (2.8)	3 (4.2)	5 (6.9)	72 (100)
자기 자신	18 (25.0)	15 (20.8)	31 (43.0)	4 (5.6)	1 (1.4)	3 (4.2)	72 (100)
시부모	23 (31.9)	7 (9.7)	22 (30.6)	8 (11.1)	1 (1.4)	11 (15.3)	72 (100)
친척	21 (29.2)	10 (13.9)	25 (34.7)	7 (9.7)	3 (4.2)	6 (8.3)	72 (100)

이웃	18 (25.0)	11 (15.3)	33 (45.8)	4 (5.6)	5 (6.9)	1 (1.4)	72 (100)
제주 생활	21 (29.2)	14 (19.4)	27 (37.5)	5 (6.9)	2 (2.8)	3 (4.2)	72 (100)
합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비율	29.9	17.1	35.9	6.9	3.5	6.7	100

전체적인 제주 여성결혼이민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우만족 29.9%, 만족 17.1%로 보통 35.9%로서 82.9%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자치도가 2007년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정생활만족도 매우만족 12.2%, 만족 58.9%로 보통 17.4%를 합한 88.5%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이다. 연구자는 그 이유를 대상을 세분화했기 때문으로 추측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추후 더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 3. 제주지역 다문화 가족의 권역별 특징

이번에 설문조사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다문화가족이 많은 곳을 택하였다 크게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양분할 수도 있었으나 예전 조사<sup>11)</sup>에서 여러 면에서 지역차가 많음이 지적되고 있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애월읍과 성산읍을 선택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부모한울

11) 김혜숙(1999; 274쪽)연구에 보면 분가상태를 나타내는 상황도 환경면 청수리와 애월읍 고내리의 경우에 차이가 있어서, 안거리에 부모세대가 거주하는 것이 청수4, 고내9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안거리에 아들세대가 거주하는 것은 청수2, 고내6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동거 유형이 다르다. 이창기(1999; 192쪽)는 제시분할도 지역에 따라 달랐다면서 제주시 서부에서부터 애월, 한림에 이르는 지역에 제시분할의 관행이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서귀포시 남원 표선 성산 세화에 이르는 지역에는 장남이 제사를 맡았다고 한다.

타리 동거와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다음 <표 19>와 같은 차이를 보였다.

<표 19> 지역별 한울타리 동거와 만족도 (단위 ; 명, %)

지역별 한울타리 동거수			지역별 만족도항목별 응답수						
지역	대상 지수	한울타리 동거수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	무응답	응답 합계
제주시 동지역	19	5 (26.3)	52(45.6)	18(15.8)	29(25.4)	3(2.6)	1(0.9)	11(9.6)	114
서귀포 동지역	28	6(21.4)	43(25.6)	40(23.8)	65(38.7)	6(3.6)	2(1.2)	12(7.1)	168
애월읍	10	4(40.0)	32(53.3)	13(21.7)	10(16.7)	4(6.7)	1(1.7)	0	60
성산읍	15	8(53.3)	2(2.2)	3(3.3)	51(56.7)	17(18.9)	11(12.2)	6(6.7)	90
합계	72	23(31.9)	129	74	155	30	15	29	432
비율			29.9	17.1	35.9	6.9	3.5	6.7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성산읍 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모와 한울타리 동거하는 가족이 53%여서 전체평균인 31.9%보다 많았으며, 서귀포거주자는 21.4%, 제주시거주자는 26.3%, 애월읍거주자는 40.0%가 부모와 동거한다고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한울타리에 동거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으면서도 고부갈등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성산읍 거주자의 25%만이 응답하여 전체 평균 31.9%보다 고부갈등은 적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도 생활만족도는 애월읍에 비해 무려 70%나 낮았다. 성산읍거주자의 경우 부모와 한울타리 동거하는 여성결혼이민자 8명의 출신국을 보면 캄보디아 4명, 필리핀 3명, 베트남 1명이다. 이들의 동거이유는 따로 살 집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자립 못해서, 문화가 달라서, 언어소통이 어려워서, 양육이 곤란해서 등인데, 이는 마을에서의 정보교환, 또는 가족이나 마을문화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기에 추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울타리 안에 살지 않고 다른 마을에 떨어져서 사는 경우에는, 시골에 어머니가 계시고 아들내외가 제주시나 서귀포시 등에 사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지역에 사는 경우에도, 농어촌에서는 시부모와 동거하는 다문화가족이 많았으며, 제주시에는 시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았다.

국적별로는 중국도 동거가족이 있기는 하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온 경우 시부모와 동거하는 다문화가족이 더 많았다. 일본 출신 결혼 이민자는 거의 따로 사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는 5년 이상 된 부부가 더 많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설령 시부모를 모신다고 해도 한마을에서 근처에 살며 모셨다. 아내의 평균나이는 일본이 가장 많고 그다음 중국, 필리핀, 베트남 순서인데, 시부모 동거비율은 베트남 아내들이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인지는 추측할 뿐이며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 외 제주지역의 권역별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만족도 조사결과였다. 가족이나 이웃, 제주 생활만족도 조사결과는 보통 이상을 합하면 애월읍 거주자가 91.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서귀포시 동지역 거주자 88.1%, 제주시 동지역 거주자 86.8%, 성산읍 거주자 62.2%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그 까닭을 애월읍 소재 다문화관련 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로 인한 다문화가족들의 인식 개선 향상을 원인으로 생각한다. 성산읍 지역에서도 이러한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센터의 운영활성화가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 IV. 맺음말

본 연구는 제주시 서귀포시 애월읍 성산읍 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 72명을 대상으로 제주 전통 가족 특징을 참고로 수정 제작한 설문지를 가지고 면접을 하며 조사하였으며 SPSS 12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 빈도분석과 상관분석, 교차분석을 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제주 다문화가족은 제주 전통가족에 비해 시부모와의 동거비율이 높았다. 또한 제주 다문화가족은 전국다문화가족보다 부부중심의 핵가족 비율이 높았다. 둘째, 한울타리안의 동거와 부모협조, 고부갈등은 상관이 있었다. 즉, 부부중심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고부갈등이 적었고, 한 울타리 안에 살지 않은 경우가 고부갈등이 적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라고 하더라도 부부중심의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고부갈등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시부모의 도움과 협조를 많이 받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동거하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면담 기록에 의하면 시부모와의 한울타리 동거는 부부문제해결이나 고부갈등이 있어도 또한 쉽게 해소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셋째, 의사결정권은 주로 남편이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주도권 역시 남편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제주 다문화가족 남편이 의사결정권과 경제권을 주도하는 비율은 제주 전통가족에 비해 상당히 높았으나, 결혼이민자인 아내는 남편의 의사결정권 및 경제권 주도와는 상관없이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및 부모, 친척·이웃·제주생활 만족도는 절반정도일 것으로 보았으나 보통이상 만족이 82.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제주 지역 내에서도 권역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가 다르고 부모와의 동거 실태도 달랐다.

이런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는 2년마다 조사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표본을 정하면서도 지역별 조사는 하지 않고 전체 비율만 나타내고 있는데, 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 지역 내에서도 권역별로 나타나는 특징이 다르므로 도전체 평균내용과 더불어 지역별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제주 다문화가족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다문화 가족 생활모습을 살펴보았다. 개인이나 가족이 위기 직면 시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이다. 기쁜 일이나 힘든 일도 가족이 응원하고 지지해주면 더욱 힘이 나고 행복하듯이 제주지역 다문화가족들이 생활 의례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가족 간에 서로 자존감을 증진시키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삶을 누렸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차이와 개개인의 요구가 다름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문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가족문화는 전통과 새로움이 혼합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주문화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학계나 사회에서 제주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이고도 발전적인 담론이 지속하여 형성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 문헌

- 구치순(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귀숙(1999), 『제주도 가족의 포괄적인 이해 지침서』, 『제주도연구』 제16집, 사단법인제주학회.
- 김규원(1995), 『가족의 관계역동성과 분제인식: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집』 제7호, 한국가족학회.
- 김양순(1975), 『제주도의 가족 생활실태 일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5권 제1호, 대한가정학회.
- 김유경(2009),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 포럼』 15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숙(1999), 『제주도가족과 켄당』, 제주대학교출판부.
- 김혜숙 외(1999), 『한국가족/친족연구의 쟁점: 도시중산층과 제주도의 가족/친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1권 제1호, 한국가족학회.
- 김혜숙(2005), 『공동거주의 의미와 한국가족의 변화: 서울지역과 제주도의 도시중산층가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7권 제1호, 한국가족학회.
- 김혜영(2005), 『가족의식의 세대적 특성』, 『가족과 문화』 제17권 제1호, 한국가족학회.
- 박정희(2004), 『제주도 여성 문화에 관한 고찰 - 가족과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종남(2010), 『혼인이민자 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2권 제1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손승영(1995), 『한국사회의 변화와 가족』,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 손승영(2011), 『한국 가족과 젠더: 페미니즘의 정치학과 젠더 질서의 재편성』, 집문당.
- 여중철(2009),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문화적 적응』, 『민족문화논총』 제44호, 영남대

학교민족문화연구소.

- 염미경·김규리(2008), 『제주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들 : 선택과 딜레마, 그리고 적응』, 선인.
- 염미경(2011),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양상』, 『탐라문화』 제3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유소영(2010), 『제주시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적응실태와 정책방향』, 제주대학교석사논문.
- 이애련(2007), 『한국다문화가족의 실태와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17호, 한국여성교양학회.
- 이차숙(1968), 『우리나라 여성의 법적 지위와 가족관계적 견지에서 본 제주도 축첩의 관행』,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대한가정학회.
- 이창기(1995), 『19세기말 제주도의 가족 구성』, 『사회와 역사』 제49호, 한국사회학회.
- 이창기(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출판부.
- 이효재(1995),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가족』,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 일레인볼드윈 외(2009), 『문화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 장운정 외(2009), 『결혼이민자가정 한국인남편의 가족관련 가치관 및 문화적응태도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제21권 제2호, 한국가족학회.
- 정순돌 외(2010), 『외국인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의 적응과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8권, 한국가족복지학회.
- 제주특별자치도(2007),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201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 조정문·장상희(2009), 『가족사회학: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 아카넷.
- 최재석(1966),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 최재석(1975), 『제주도 잠수가족의 권력구조』, 『동양학』 제5호,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 최재석(1976), 『제주도의 장남가족 - 제주도동부의 한 주농종어부락의 사례 -』, 『아세아 연구』 제56호,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 최정혜(2009), 『다문화가정의 가족문제와 대처방안』, 『중등교육연구』 제21집, 경상

대학교중등교육연구소.

최홍기(2006), 『한국가족 및 친족제도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통계청(2011), 『다문화인구동태 통계』, 보도자료 <http://kostat.go.kr>.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문화인류학』 제39권 제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행정안전부(201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다문화지원팀.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여성과 한국남성간의 혼인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 Characteristics of Jeju multicultural family

Jang, Seung-Sim\*

Due to movement of capital and labor influenced by informatization and globalization, multicultural family has been increasing. Interracial families in Jejudo have different types of family courtesy and life satisfaction compared to Jeju traditional(local) families of village endogamy.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percentage of nuclear family of Jeju multicultural household is lower than the percentage of Jeju traditional family, but higher than the percentage of nationwide multicultural family. Also, the household which lives a couple-centered life and doesn't live with their parents in law has less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Both family who lives or doesn't live with their parents in law are received financial, child care, and study about Jeju traditional culture help from their parents in law. Unlike Jeju traditional family, husband has decision making and family finance in Jeju multicultural family, and their wife showed high contentment of their husband. Also immigrant women married to Jeju showed high satisfaction on their life in Jeju, and the family which the first son doesn't live with showed a high will of equal inheritance, and the household which the first son lives with was opposit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locals, and the remarkable one is that there is a high percentage of family which live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VicePrincipal, YeongPyeong Elementary School

with their parents in law in Seongsan and the highest percentage of immigrant women married to Jeju live in Aewol. I hope his study, which shows characteristics of increasing jeju multicultural family compared to Jeju traditional family, will help better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y in Jeju.

**Key Words**

Jeju multicultural family, the features of multicultural family, living with their parent in law, the contentment of immigrant married women

**교신 : 장승심** 690-1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225번지  
영평초등학교 교감  
(E-mail : minisimi@hanmail.net 전화 : 064-702-1305)

논문투고일: 2012. 05. 31.  
심사완료일: 2012. 07. 25.  
게재확정일: 2012. 08. 14.